

코로나19 확진자수 80만! 금융시장 영향은?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수 80만명 상회. 재확산 가시화

- 글로벌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수가 다시 80만명을 넘어섰다(4월 15일 81.9만명, 4월 16일 80.5만명). 2021년 1월 10일 82.3만명 이후 최대치이자, 2020년 12월 20일 최대 확진자수(85.1만명)에 근접한 수치이다.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수 7일 평균은 73.1만명으로 올해 1월 13일 73.3만명 수준까지 레벨업되었다. 최근 확진자수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당분간 확진자수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코로나19 공포가 금융시장을 흔들까?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코로나19 재확산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세부 데이터를 보면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이 이전과 다르기 때문이다. 핵심은 코로나19 재확산이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이다. 즉, 코로나19 재확산이 글로벌 경기회복에 저해요인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유 1) 코로나19 재확산 중심의 변화.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 일단,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심에는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이 위치해 있다. 2020년 4월과 작년 연말~올해초 코로나19 재확산이 미국, 유럽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과는 다르다. 실제로 최근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의 전세계 일일 확진자수 비중이 미국, 유럽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이다. 미국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7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은 올해 초 수준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에서 정점을 통과하는 양상이다. 반면, 동남아시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23만명(인도 20만명 이상)을 넘어섰다. 남미, 중동도 연일 사상최대 신규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유 2) 코로나19 백신 영향력 확대. 경제정상화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영향력 확대가 코로나19 공포를 제어하고 있다. 여러 논란 속에서도 글로벌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수는 이미 8.8억명(4월 16일 기준)을 넘어섰다. 백신 접종자수가 월등히 많은 미국(2.02억명)과 영국(4,150만명)은 코로나19 진정세가 유효하다. 특히, 영국은 유럽 내 거의 유일하게 확진자수가 감소하는 국가이다(1월 7만명대에서 4월 현재 2천명대로 레벨다운). 집단 면역에 근접한 이스라엘도 확진자수가 1만명에서 100명 이하로 줄었다.
-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시점은 아니다. 생활방역은 유지/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점차 입증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보다 경제 정상화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사회/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보다 크게 약해졌고, 앞으로 더 약화될 전망이다. *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1월 글로벌 경기불안, 달러 강세를 자극한 유럽

코로나19 상황은 불안하지만, 봉쇄조치 완화, 경제활동 정상화 지속

-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주목해야 할 지역은 유럽이다. 올해초 글로벌 경기불안 확대, 달러 반등의 중심에 유럽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유럽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강력한 봉쇄조치를 연장하며 경기불안을 자극한 바가 있다. 3월에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봉쇄조치 연장을 결정한 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봉쇄조치를 연장한 것이지, 강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4월 들어 영국, 독일, 미국 등 주요국들은 백신 접종의 효과를 반영하며 봉쇄조치 완화를 시행/준비 중이다.
- 실제로 독일, 영국, 미국 등 핵심국가들의 봉쇄조치 강도는 완화되고 있다. 영국은 1월 88%에서 66%로 레벨다운되었고, 독일도 83%에서 75%로 낮아졌다. 그 결과 유럽 주요국들의 구글 이동성 지수의 반등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도 봉쇄조치 강도를 75%에서 57%로 낮추었고, 구글 이동성 지수는 보험권까지 회복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주요국들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생활방역과 경제활동을 분리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생활방역은 유지/강화하는 가운데 경제활동은 점진적으로 정상화 되어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유럽이 안정되면 달러는 약해질 것. 위험자산 강세의 중요 트리거/변수

- 이처럼 유럽발 경기불안이 진정되고,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2분기 중 달러화의 하향안정세를 기대할 수 있다. 1) 글로벌 GDP 성장률 레벨업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2) 유럽이 미국보다 경제성장률을 우위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달러 약세 매커니즘에 유로존 경기회복이 가세하며 유로 강세/달러 약세 구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2분기가 시작된 4월부터 달러가 하락반전하고, 위험자산의 동반 강세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외국인 매매의 영향력이 커진 KOSPI. 2분기 상승추세 재개/강화를 위한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환율 변수에 민감하다. 달러 안정, 원/달러 환율 하락을 바탕으로 2분기 KOSPI시장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기초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 개인투자자들의 대량 순매수로 유동물량이 줄어들어 따라 외국인 수급이 KOSPI 등락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히려 커졌다(4월 이후 상관관계 0.9). 2분기 KOSPI 강세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펀더멘털 모멘텀 강화, 달러 약세, 외국인 순매수 등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그림 1. 글로벌 코로나 19 확진자수 80 만명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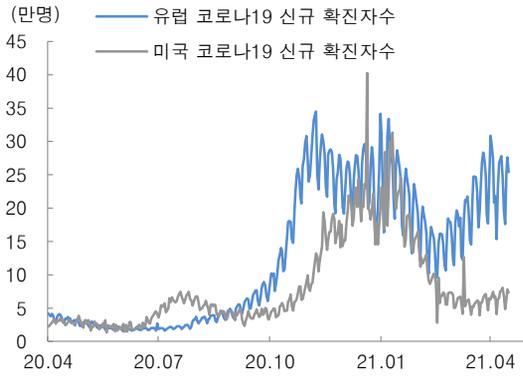
자료: WHO,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중심의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세



자료: WHO,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미국 안정, 유럽 확진자수는 전고점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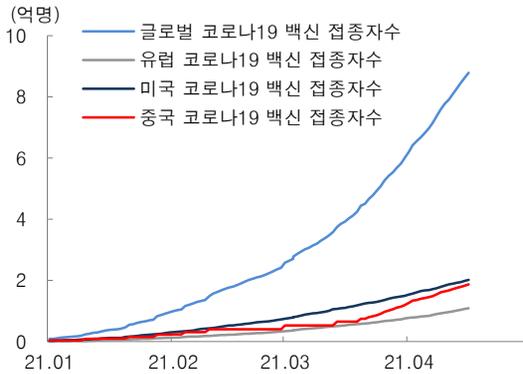
자료: WHO,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수 급증. 남미(16만) 동남아시아(23만), 중동(8.5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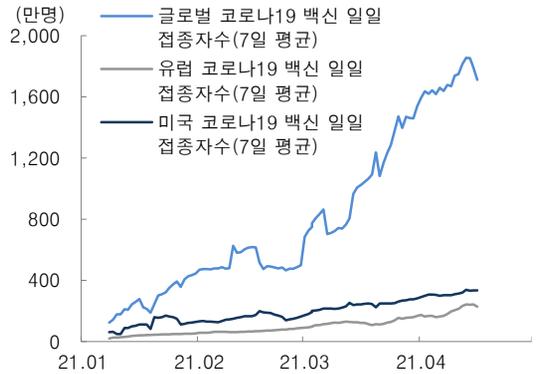
자료: WHO,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글로벌 8.6억명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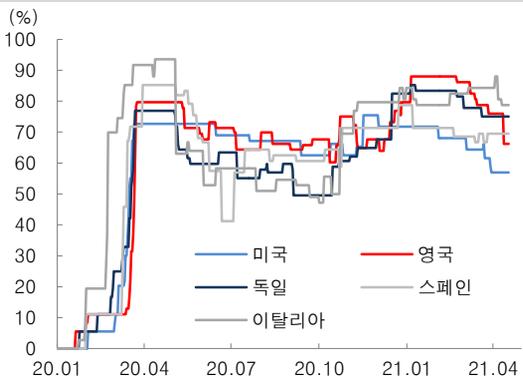
자료: WHO,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빨라지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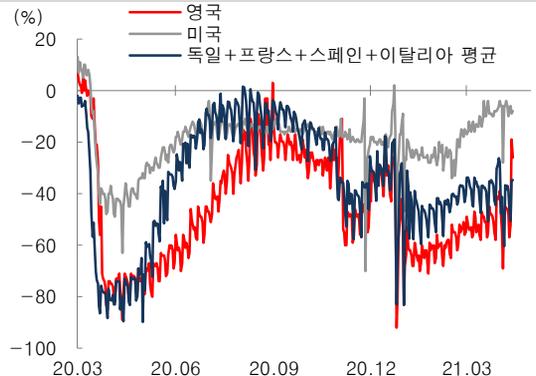
자료: WHO,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조치 완화 흐름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 구글 이동성 지수도 회복세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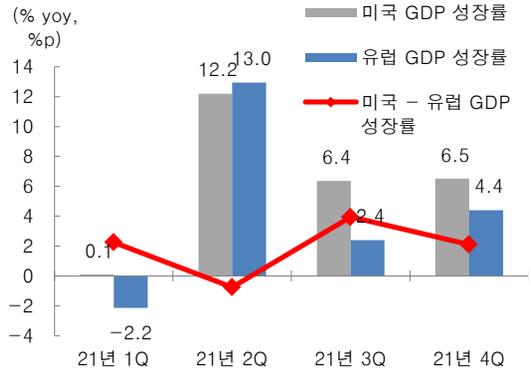
자료: Google,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 미국 GDP 성장률 전망 가파른 상향조정세
영국에 이어 유럽 경기회복 기대 유입 가능**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 2/4 분기 유럽 GDP 성장률 미국보다
양호한 흐름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 2/4 분기 달러 약세압력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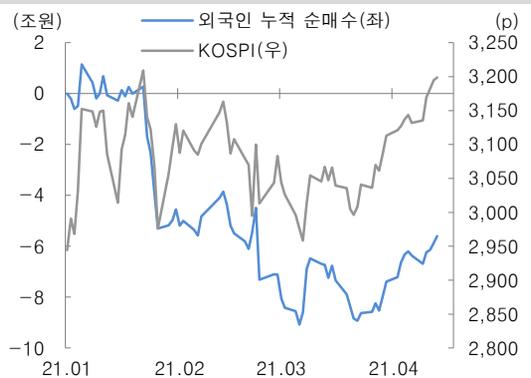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 원화 강세 = 외국인 순매수 지속 가능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3. 외국인 수급과 연동되는 KOSPI 항배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